■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첫 열매 그리스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22

Tag: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15:16-22)

'예수님께서 부활 하셨습니다.' 인사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연민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품고있는 감정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공통된 감정을 갖는다. 안타깝고, 슬프고, 아쉬워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허무한 감정을 느낀다. 죽음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절망이다.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다.

그런 인류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스럽고 찬양이 솟구치는 선물을 주신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희미하고 암시적인 언급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꿈결같은 이야기 쯤으로 여겼다.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 또한 의례적이고 말대답 정도의 수준, 또는 먼 미래에 있을만한 일이고 현재 자신의 삶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여겼다. 부활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부활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부활이 자신의 궁극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매우 관심을 두시고 가르치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면도 아주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러나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것을 단순한 기적 정도로만, 단순히 나사로에게 베푼 선한 일 정도로만 해석했지, 부활 사건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자기 자신의 현재적 삶과, 자신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와 부활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Easter;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게르만/앵글로색슨 족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어려우니까, 봄과 다산의 여신(Eostre;Easter)을 기념하는 날을 부활절로 삼았다고 한다. 부활절 토끼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원래 부활절이 유대인의 유월절(파스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쁘스크, 빠스꾸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죽음을 아쉬워하며 환생에 대한 막

연한 환상이 자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이번생은 어짜피 망했으니까, 화려한 인생은 다음 생에서나 기대해 보지 뭐... 이런 느낌.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가는 느낌. 죽을 순 없으니까, 일부러 죽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럴바에야 그냥 살지 뭐...

아니면, 화려한 인생 따윈 바라지도 않아. 어차피 불가능한 환상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거야, 나는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살거야. 이렇게 소확행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인정받고 있다.

그래도 인생이라는게, 뭔가 짜릿하고, 거창하고, 바람직하고, 떳떳한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라를 구했다든지, 인류의 발전에 족적을 남겼다든지, 그래도 나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는 남겨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그래도 너만은 나를 배신할 수 없을거야. 하는 관계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가족?)

바울은 가정도 없었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교회를 일구어 냈고, 부활 소망으로 가득하였다. 그의 인생관을 엿 볼 수 있는 구절이 19절이다.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esp 바울)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아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끊기고-그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은 열렸다.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 속에 살아있는 영혼이 씨처럼 들어가 있어야 한다. 죽은 영혼으로는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없다. (유정란 개념?)

예수와 접붙임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영혼은 결코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심판의 부활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어야 할 때다.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한다.
정신 차려, 나의 영혼아, 너에게 다음 생은 없어.
이미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거야.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해.
우리의 남겨진 삶은 살아있는 영혼으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너의 영혼은 씨앗과 같아, 천국에서 너는 비로소 싹이 나는거야.
영원한 세계에서 너는 부활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 이제 너도 부활하면 너의 영혼은 영적인 감각으로 충만할거야, 너의 몸은 온전한 부활체가 될거야.

지금 너의 삶은 준비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부활을 꿈꾸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너는 영혼을 살찌워야 해. 세속적인 것들에 눈 돌릴 겨를은 없어.

이곳에서 너의 영혼을 불사르지 마. 되는대로 살지마,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남 탓하며 세월 보내고, 남

에게 휘둘리면서 살지마. 오히려 너의 영혼이 회복하는데 힘써, 너의 영혼이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도록 방치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의 삶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내버려두지 마.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천국을 예비하고 연습하는 시간만큼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시간은 차고 넘치지. 오히려 넉넉히 남겨져 있다.
너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남을 돕기도 해야 해. 그 영혼을 위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
부활의 소중함을 모른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만족하지 마. 세상은 소꿉장난이야. 지혜가 필요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겠어.

어제 국민일보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0829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인생이 초라함을 느낀다.
그런데 나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인생이 그런 초라함을 느낀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감정인가?
세상의 주인은 초라한데, 지구나 우주는 거대하고 떳떳하다.
어찌 집 주인은 초라한데, 집이 위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집 주인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지구는 여전히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한다.
우리 인생은 세속적으로 꼬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세속적인 꼬임도 영적으로 풀어내어야 하리라.
막히면 뚫고가고, 돌아가고, 넘어가면 된다.

앞으로도 세상은 여전히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고 올라가야 하리라. 아멘.

기도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우리 의를 위한 부활
초라한 삶일지라도,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소서.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잉태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제자훈련의 목적　　성경: 사도행전 20장 28-32절

Tag: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행20:28-32)

1.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28)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소중하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는 얼마든지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교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많은 교회가 종교화되었다.

2. 영적 전쟁에 군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29)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세속화를 바라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교회도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있다.
-서로 격려하며 진리가 살아있게 해야 한다.

3.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말라(30)

-세상의 제자, 이념의 제자가 되지 말라.
-거짓의 산에 속지 않으려면 성령과 진리로 무장하라
-어그러진 말;사리에 맞지 않는 말. 문법, 논리, 상식

4. 눈물의 훈계를 잊지 말라(31) don't forget

-잊지 말라, 잊지 않도록 반복하라. 훈련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감동을 잊지 말라, 왜 잊는가? 세상을 바라보면 잊는다.
-가시나 엉겅퀴, 자갈밭이나 모래 밭이면 잊는다.
-삶이 어려울수록 주께 더 가까이.

5.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을 외우고, 날마다 읽고,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말씀 훈련하고,
-주 중에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라.